

授業設計와 教授方法의 例示

— 歷 史 —

康 宇 哲

(梨花女大 社會生活科 教授)

I. 序

大學 강의에서 특수한 教授方法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느냐의 문제는 原理的인 면을 떠나서 가끔 話題에 오를 뿐 학술적인 데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大學教育誌가 特輯으로 엮어 보자는 욕심을 낸 데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내 나름대로 추측해 본다.

첫째로 初·中·高校에서는 수업설계나 교수 방법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끔 그 指導에 臨하거나 諮問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 大學도 스스로 改善하려는 의도적 노력이나 發展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안될 立場에 이르렀다고 본다.

둘째로는 大學의 普遍化 또는 大型化를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작은 單位(人員)의 강의실에서는 세미나 등과 같은 個別學習이 가능하였으나, 50~100명의 大單位 학습이 불가피한 오늘날에는 무엇인가 授業戰略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자체의 반성이 생겨난다.

간단히 보아 넘기기 어려운 문제들이 이 밖에도 있을 수 있으나 이 두 가지 과제만 보더라도 연구의 여지는 많다. 그러나 歷史學의 教授方法은 口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通例이며 研

究方法 자체가 文獻學이기 때문에 읽고, 말하고, 쓰는 방법의 반복훈련이 되게 마련이다. 더하여 역사학은 성격상 매우 保守的인 학문이다. 근래에 와서 他學問과의 連結을 강조하지만 역사학이 그 범위를 무제한 확대시키면 관련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현실과, 그 변화하는 방향과 변화시켜야 할 방향을 두루 살피는 데 목적을 두고 이 論議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II. 史學科 教育目的의 變化

해방이 되고 6·25를 거친 이후 30여 년 동안 數的으로 가장 많이 팽창 보급된 學科의 하나가 史學科가 아닌가 생각한다. 40여 개 綜合大學에서 거의 史學科를 두고 있으며 國史學科, 國史教育科를 史學科와 併設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史學이 哲學과 더불어 모든 學問(自然科學은 除外)의 기초라는 전통적 관념이 지배하여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대학에서의 史學科의 教育目的은 그 陳述이야 어떻든간에 教育課程上에서 볼 때 史學者를 양성하는 데 一次의 목적을 둔 것과 같은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50年代까지만 하여도 史學科의 지원생은 사학자가 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지원하는 목적이 歷史를 理解하려는 데로 바꾸어졌다. 史學者 양성은 이제 大學院에 맡겨야 한다는 制度上的 변화와 歷史는 史學者 集團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보편화된 셈이다.

어느 學問을 막론하고 歷史와 直接的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역사는 過去의 學이기는 하나 모든 分野를 包括하는 특징이 있으며 人間文化의 精神的, 社會的 및 物質的인 모든 成就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전공에 있어서나 多少間의 史의 認識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史學科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孤立된 狀況에서 운영되고 있다. 敎養課程에의 協助 이외에는 他學科와의 유대가 매우 약하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他學科에서 선택과목으로 史學科의 강의를 듣는 학생이 적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그 원인이나 책임은 사학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他學科에서 歷史意識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으나, 사학과의 교육과정 構成이 사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만 有用하게 一般史, 時代史 中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史學科가 보다 더 進取的이기 위해서는, 歷史認識을 필요로 하는 다른 學問分野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짜고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副專攻生이 늘어나고 一般선택으로 歷史공부에 참여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살리려면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方針부터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이 開設 강좌수의 대폭적인 증가이다. 이 강좌도 종전의 時代史나 特講數가 아니라 종전에 特殊史라는 이름으로 敬遠했던 社會, 經濟, 産業, 宗教, 文學, 藝術, 科學 등의 史의 展開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門戶를 넓히는 일이 시급하다.

非專攻生이나 專攻生을 막론하고 史的 認識을 원하는 학생에게 역사의 이해와 探究能力을 주기 위한 教育方針으로 바뀌어 졌을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육과정이 생겨날 것을 豫見하여 보는 일은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Ⅲ. 敎養課程으로서의 歷史科目

敎養課程에서는 주로 非專攻學生에게 史學의 素養을 높이기 위하여 韓國史를 必須로, 世界史를 선택으로 課하고 있다. 이에 대한 批判은 高等學校에서의 敎科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점과 大都市의 大學에서는 時間講師에의 依存度가 높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이 補充策으로서 先任교수 또는 元老교수가 敎養과정은 맡도록 하자는 정도의 의견이 나오고 있을 뿐 敎育課程, 敎授要目 및 敎授方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이냐는 데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敎養과정에서 課하는 科目은 韓國史概說(必須)과 世界文化史(선택)이다. 이 두 개의 概說類는 대개가 3學點씩이어서 자칫하면 高等學校에서의 敎과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水準과 深度로써 가르치게 된다. 그러나 敎養과정으로서의 歷史敎育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人文, 社會, 科學, 藝術 등 몇 가지 領域으로 나누어 要目を 作成하고 그 方面의 학생들에게 受講토록 하는 方法이 있다. 이른바 授業設計는 강의실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모든 준비과정을 말함이다. 이 設計는 敎養과정의 경우 개별적인 思考에 의하기보다는 集團的 作業이나 思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 경우에 敎科량보다는 要目이 중요하며 敎과서는 一般的인 概說書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講義名도 千篇一律적으로 「한국사개론」만을 제시하기보다는 「人文系를 위한 韓國史」, 「科學과 韓國史」 등으로 標識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이며 강의내용도 一般史의인 데서 벗어날 수 있다. 새로운 강의 形式과 內容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해 동안 지속적이고 意圖的인 試圖와 修正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법인데 해방 후 이러한 노력의 자취가 부족하였던 것 같다. 政治史 中心의 時代史의 전개로 일관되어 왔던 敎養과정에서 다분히 主題史 中心으로 옮겨지는 듯한 要目으로의 改正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현재 한국사를 전공하는

교수들은 一次的으로 專攻을 時代別로 구분한다. 西洋史를 地域으로 分擔하는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이러한 特性을 감안할 때, 未備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要目的 例示가 가능할 것이다.

<교양과정 韓國史 要目的 例>

- 對象 : 學部 2年 水準, 人文系列 學生
 - 時間 : 15週(시험기간 제외), 3學點 3時間(各 50分 수업)
 - 講義名 : 人文系를 위한 韓國史 序說
 - 週別主題 :
1. 古代史 2. 高麗史 3. 15·6世紀史 4. 17·8世紀史 5. 19·20世紀史 6. 政治制度史
 7. 經濟構造史 8. 社會組織史 9. 文學思想史 10. 詩歌, 연극, 희곡史 11. 巫俗史
 12. 佛敎史 13. 儒學史 14. 天主教·기독교史 15. 美術 16. 綜合

매우 卽興的이고 기계적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類型을 찾기 위한 例示이다. 이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構成面에서 첫 部門은 時代史이기 때문에 각 系列에 共通的이다. 둘째의 社會部門은 社會學科 學生의 경우 더 細分될 것이며 약 50%는 人文과 藝術에 관련된 것이다.

둘째는 要目作成에서 主題名을 敎授者의 의도에 따라 더 적절한 週別 主題를 붙이고 每週 3시간의 小主題로 나누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내용에 맞는 수업戰略(資料 포함)이 자동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셋째로 이 경우에 팀 티이칭도 가능하며 細部의 史實의 羅列보다는 變遷過程에 力點을 두는 계획이 多岐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例示는 여러 가지 類型 중에서 한 가지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은 大學이나 敎授陣의 뜻에 따라 특색 있는 要目を 作成하는 데 기록제가 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그리고 전국의 교양과정이 多樣性을 지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제시된 것이다. 그 시행과정에 대한 의견 교환 또는 보고서 교환의 기회가 생긴다면 발전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교양과정을 固定的인 구속에서 벗어나서 개방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각 學科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사 관계의 강의를 他專攻學生의 교양

과정으로 가급적 많이 인정하여 주는 戰略이다. 한국정치사, 한국경제사, 한국문학사 등이 교양과정을 의식하여 要目的의 변경을 시도하고 이를 권장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專攻學生은 반드시 他學科에서 국사교양을 청강해야만 교양과정으로 인정해 준다는 단서가 붙게 마련이다. 교양과목을 전공과목과 지나치게 구분하면 교양과정은 서자 취급을 계속 면치 못할 것이다.

IV. 專攻 必須科目

오랫동안 한국의 대학은 극단적인 學科別 獨立과 孤立化 현상을 일으켰고 講義의 開設은 最少限으로 제한하는 운영 방침으로 이어졌다. 강의 開設數의 대폭 증가와 學科間의 學生 淸강의 交流는 制度的으로 一時에 改革할 수 없는 고질적 痼疾이기는 하지만, 方向을 우선 확고하게 세워 놓고 점차적인 개선을 해야 할 급선무 중의 하나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史學科의 경우 史學家가 되려고 하는 學生은 극소수이고, 역사를 이해하여 이를 토대로 다방면에 진출하려는 사람이 많은 이상 교육계획이나 設計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 論議의 基底이다.

우선 專攻課程에서 必須科目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必須科目은 先修科目이라는 뜻이 강하다고 해석한다면, 이 수효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선택과목의 개설을 대폭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예이기는 하지만, Duke 大學 史學科 學部의 1981~82年度 요람을 보면 先修科目이 14個 科目 중에서 2個 科目만을 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必須科目이기 보다는 先修科目의 개념이 더 강하다.

이 14個 科目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1. Europe to the 18 Century
- 21S. Europe to the 18 Century(S는 세미나)
22. Europe from the 18 Century
- 22S. Europe from the 18 Century
25. Introduction to World History: to 1700

- 26. Introduction to World History: since 1700
- 53. Greek History
- 54. Roman History
- 91. The Development of American Democracy to 1865
- 91S. The Development of American Democracy to 1865
- 92. The Development of American Democracy, 1865 to the present
- 92S. The Development of American Democracy, 1865 to the present
- 175D. 176D. The Third World and the West: 1500 to present (2학기 계속 강의)

이 14個 科目에서는 대체로 연속강의가 권장되고 있다. 대략 미국사, 歐洲史, 第三世界, 그리고 古典으로 나누어 이 方面을 集中的으로 先修시키는 경향이 엇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韓國史, 東洋史, 西洋史, 原典, 方法論 등을 모두 必須科目에 넣기 때문에 자칫하면 5個 科目以上이 必須가 되고 또 선택도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모두가 필수科目이나 다름 없는 교육설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한 가지의 특색은 概說을 專攻生에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歐洲史에 4가지 과정을 부과하고 있는 바, 學生들로 하여금 21과 22, 21과 21S, 22와 22S, 21S와 22S 등을 자유롭게 택하게 하여 자신의 專攻배경을 깊이 있게 構築하도록 하는 先修科目인 동시에 基礎 작업이 된다. 難易도에 따라 先修科目을 각각 1學年(20번대), 2학년(50번대, 90번대), 나아가서는 3학년에서도 택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진취적이고 학생의 個性을 존중하는 조직방식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學科 專攻必須는 다음과 같은 軌道修正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1) 전공필수의 개념을 先修科目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 2) 要求學點 또는 科目數는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 좋겠다.

3) 必須科目이라 할 지라도 開設강좌수는 늘려 韓國史, 東洋史, 西洋史를 두 강좌씩 一年 과정으로 하고 深度 있게 다룬다.

4) 필수과목을 羅列的으로 부과하지 말고 선택의 여지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는 方法이다.

5) 널리 一般化된 史學概論의 要目이 必須科目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V. 專攻選擇 科目

選擇科目이라고는 하지만 선택의 餘地가 거의 없는 현재의 狀況에서는 이를 論議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앞서 소개한 Duke University의 경우 學部の 전공선택이 약 60科目(3학점 단위), 大學院에 약 50科目을 開設하고 있으며, 교수진이 명예교수 1명, 초대교수 2명을 포함하여 30명이라는 점은 우리의 與件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教授要員을 증가시키고 강의수를 증설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간단한 결론에 이르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해결되었다고 假定하더라도 그 밖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를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論議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것은 기계적인 三分法이다. 즉 各大學 史學科의 교수진 구성이나 教科課程의 科目比率이 韓國史, 東洋史, 西洋史로 三等分되어 왔다는 傳統에 대하여 일단의 의문을 던져보자는 것이다.

Duke 大學校의 예로 보면 西洋史系列 15科目, 美國史系列 18科目, 地域史(러시아, 스페인, 멕시코, 캐나다, 中, 日, 印, 東南亞 등) 13科目, 그 밖에 思想史 4, 科學史 4, 外交關係 4, 軍事史에 이르는 特殊史까지 대체로 네 가지 領域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특징을 보면 西洋史 중 약 50%를 英國史가 占하고 있고, 다음이 프랑스史 및 歐洲史로 되어 있다. 이 意圖는 그리이스, 로마史 그리고 中世史로부터 英國史로 移行하고, 이것을 美國史의 先行部分으로 삼고자 하는 미국 歷史教育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그 밖의 世界史는 거의 地域史로서 概說이 아니라 主題的인 接近을 하고

있다.

바로 이 主題史의 科目展開方式이 하나의 特色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講義名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는 것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그 실례를 講義名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104. Intellectual life of Europe, 1250~1600
 - 105. Political & Constitutional History of England
 - 109. Contemporary International problems: Their Historical Origi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y
 - 113. 114. The United States from 1890s to World War II
 - 142. The Chinese Revolu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 150S. The Concept of the Democratic Faith
 - 151. Modern Technology
 - 156. Justice and Society(철학사)
 - 169. 170. The Social History of American Women
 - 184. An Introduction to Canada and Canadian Issues
 - 202. Russian Anachism: Theory & Practice
 - 207S. 208S. The Development of Urban America
 - 243—244. Maxism & History
 - 248. History of Modern India & Pakistan, 1857 to the Present
 - 260S. Economic History of Japan.
 - 273. 274. Topics in the History of Science
-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教授充員과 개설講座的의 증가라는 要求가 充足되면, 우리 授業設計에 있어서 달라져야 할 점이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음을 위의 例示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첫째가 講義內容의 組織方式이다. 通史型이나 時代史型에서 地域史나 主題史의인 接近으로 옮겨가는 강의 내용의 조직이어야겠다. 현재는 特講이라는 꼬리가 붙은 강의명에 教授內容이 감추어져 있다. 둘째로는 時代史로서 古代, 中世, 近世 등의 이름을 되도록 붙이지 않고, 年代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본다. 이

를 韓國史에 適用하면 朝鮮前期史가 韓國 15·6 世紀史 또는 朝鮮 후기는 韓國 17·8世紀가 될 것이다.

地域史의 경우는 자기 나라와 관계가 깊은 國家를 택하여 광범하게 개설하는데, 대부분이 19世紀 이후를 다루고 있다. 근래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中東史나 越南史에 대하여 등한시하는 科目配例은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다음으로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할 점은 史學科에서 개설하고 있는 강좌에 科學, 哲學, 政治, 思想 등 여러 가지 분야의 학생들이 와서 들을 수 있고 또 2個 學科에서 共同으로 개설하는 강좌도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學科가 지나치게 個別化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즉 政治學科와 史學科에서 공동으로 「韓國外交史: 19세기 이후」, 또는 「韓國科學史: 15세기부터 현재」까지라는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는 學問間的 連合은 물론 學科 사이의 굳은 벽을 헐어버리는 開放性과도 관계된다.

VI. 授業方法에 관한 意見

歷史學의 강의에서 특별한 수업方法이 있을 수 있는냐는 문제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歷史學의 연구방법의 특징이 文獻學的 方法이고 보면 전달양식도 자연 口述方法이 으뜸이다. 그러나 강의의 目的이나 형태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大學에서의 역사 授業方式은 口述과 세미나의 두 가지 形態로 大別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方式을 成立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手段은 文獻을 통한 읽기와 觀察이다. 따라서 史學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읽을 資料이다. 原典(一次史料)을 비롯하여 各種 論文과 著書가 具備되어야 하는 것이 史學科施設의 必須條件이다.

이 充分條件에 따라 一次的으로는 口頭報告(세미나), 書面報告(리포트) 등이 실시되고 있고 이 밖에도 現地踏查, 集團研究, 古典읽기(講讀) 등 二次的 方法이 非學點 또는 實習學點으로 부과

해져서 正規강의 못지 않게 중시되어 오고 있다.

그 밖에 遠距離에 있는 遺跡遺物을 시청각교제로 구성하여 이를 敎室에서 再演시키는 方法도 있다. 이런 方法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되고 있는 方法이기는 하다. 敎授의 口述講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역사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 즉 學生들이 노트하기에 열중하는 나머지 歷史적으로 思考하는 기회가 적고, 歷史가 文字에 의해서만 전달된다는 不滿을 느끼는 데서 이러한 시청각 교재의 활용이 비롯된 것이다.

“論爭이 없는 歷史學은 죽은 歷史다”라고 한 名言에 기릴 것도 없이 歷史事象에 대한 활발한 論議를 유도하는 기회도 자주 제공해 주어야 하며, 筆答시험에 있어서도 主觀的인 해석을 묻는 것도 가끔 있음직하다. 또한 踏査후의 個別報告 書도 필답시험 못지 않게 중요하다. 要는 歷史 科目의 評價가 筆記시험이나 리포트 提出 이외에 얼마나 多角的인 方面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담당교수의 授業設計와 方法에 直結되는 것이다.

史學研究에서는 비록 學部의 경우라도 卒業論文을 부과하는 것이 傳統이었다. 이 전통은 史學의 특성을 살리려는 것인데 學生數의 증가와 無學點制 論文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 전통이 무너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卒業論文을 위해 3학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史學科 出身에 대한 評價는 卒業論文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종래의 評價方式을 회복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한 가지 더 添加한다면 歷史學에서도 計量的인 方法을 가급적 많이 적용하는 授業設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歷史의 分析과 觀察力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方法은 학생들을 단순히 博識한 사람으로 키우려는 역사교육이 아니라, 특정한 歷史意識 위에 세워진 歷史認識(探究方法)의 科學化에 대한 能力을 키우기 위한 歷史교육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